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제 목	**박주민 국회의원 평등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담 당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equalact2017@gmail.com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발 송 일	2026년 11월 10일 (화)

기자회견

박주민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11월 1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은 지금도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차별이라 부르고 바로잡을 일반법은 아직 없습니다. 2007년 첫 정부안 이후 여러 차례 법안이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누구든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교육·재화와 용역·행정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처벌보다 시정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뒀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종교계·여성계·시민사회와 함께 평등법 제정과 국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 진행 순서

시간	순서	발언
11:00	여는 말, 대표발의 취지	박주민 국회의원
11:05	연대 발언 1.	정혜진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 그리스도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1:08	연대 발언 2.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1:11	연대 발언 3.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이후	평등법 의안과 접수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문

박주민 의원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102827&sid=146699
*국회의사중계 다시보기로 갈음합니다

정혜진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 그리스도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 이제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의 집행위원장 정혜진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 시간 미뤄져 온 평등의 약속을 위해 나서 주신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하신 모든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등세상은 11월 한 달 동안 '환대의 항해'라는 이름으로 차별에 반대하고 환대를 지향하는 만남과 배움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째 이 자리를 이어오며 거듭 확인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을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를 차별과 배제에 노출된 이웃들 곁으로 이끕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확대된 목소리가 부각되어 왔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 전체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종교적 찬반 논쟁보다, 이 법이 없는 사회에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먼저 바라봐 주십시오. 정체성이 드러날까 두려워 일상에서 침묵해야 하는 사람들, 정당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겪고도 구제받을 길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며,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지닌 시민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한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적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이웃으로 인정할지 판단하던 사람에게, 자신이 배척하던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리를 상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랑을 베푸는 주체라고 여기는 우리의 자리 자체를 뒤집는 말씀입니다.
평등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관용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려는 권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권리입니다.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에 응답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설득할 때까지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미뤄 둘 수는 없습니다. 평등법이 없는 시간은 누군가가 혐오와 차별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시간을 끝내기 위해 힘있게 나서 주십시오.
오늘의 발의가 또 하나의 발의로 끝나지 않고, 민주당과 국회 전체의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입니다.

오늘 제22대 국회에서 세번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진보당 손솔의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의원의 대표 발의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제21대에도 4개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모두가 임기 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법제도에서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를 담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헌법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14차례 권고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마치고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긴급한 4가지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중간이행상황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법률상 및 사실상의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뿐만 아니라 빈곤 여성, 레즈비언·양성애자·트랜스젠더·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여성 및 이주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여성 및 노년 여성 등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과 여아가 경험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간이행보고서에서 구체적일 일정을 수립하지 못한 채,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했던 빛의 혁명에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바란 사회의 모습은 차별금지하고 인권보장이 보장되는 사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인종,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발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바랍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이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오늘로 7번째입니다.

돌이켜보니 평등법을 두 번이나 발의하신 국회의원은 박주민 의원이 처음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의원님과의 마지막 발의 기자회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이라는 과업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합니다. 멈춰 있는 국회의 시계가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3개가 됩니다. 평등법은 논의할 쟁점이 많은 법안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성소수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야한다는 인권의 기본원칙을 논쟁의 지점으로 삼을 시기는 지났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어야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잘 담은 법안은 어떠해야하는가 입니다.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논의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더는 국회 밖이 아닌 국회의 절차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논의입니다. 법사위의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의원님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가신청자 100명을 넘었습니다. 22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의제의 대표적인 것이 이 평등법입니다.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 이 지난한 과정을 이제는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법사위의 즉각 논의, 22대 국회내 평등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별도첨부 사진. 출처 : 박주민 의원실